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연수 프로그램 시행

사회·복지

장애인 인권 법규 개정을 통해 '보호'에서 '존중' 및 '이행'으로 확대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10대 행동방안' 시행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	〈유럽〉
미국 시카고강기향 올랜도박혜진 하와이임지연 휴스턴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장지훈 토론토고한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홍성아 인도 뉴델리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박재현 중국 광저우손지현 베이징정민욱 충칭모종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장한빛 독일 베를린홍남명 프랑크푸르트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진광선 이탈리아 로마서동화 피렌체김예름 프랑스 파리김나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한울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연수 프로그램 시행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사회·복지

토스카나주는 실직 상태에 있거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직업 연수 과정 ‘네 인생의 새로운 수업(Un Nuovo Corso alla Tua Vita: A new course in your life)’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일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는, 즉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일컫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ngage or Training)가 매년 증가
 - 2022년 현재 토스카나주에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약 1만 2천 300명의 청년들이 있음
 - 전체 청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9년 약 11,800명에 비해 늘어난 숫자
- 대학 교육과 사회 경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무료로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
 -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중퇴하거나 실직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쟁력과 자립 기회를 주려는 주의 노력
 -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여한 청년들이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내용

- 이탈리아의 청년 보장 프로그램(Youth Guarantee Program)이 재정을 지원하고, 토스카나주와 청년 자립 단체 지오바니시(GiovaniSi: 청년을 뜻하는 Giovani와 긍정을 뜻하는 Si의 합성어)가 협업하여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
- 프로그램 대상은 다양한 이유로 현재 직업이 없거나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만 18~29세의 토스카나 거주 청년
 - 토스카나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청년들도 참여 가능
- 다양한 직업군을 배울 수 있는 132개의 연수 과정 운영

- 회계, 마케팅, 관광, 외국어, 요리, 유통업, 조경, 기술 설비 등 다양한 직업 세계에 맞춰 연수 과정을 세분화
 - 요즘 트렌드에 맞는 소셜미디어 매니저 과정과 해외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피자 요리사 연수 과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2022년 3월에 33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132개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1개 연수 프로그램당 10시간의 교육 시간이 소요
-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약 150만 유로 투자
- 참여 방법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인생의 새로운 수업’ 웹사이트에 가입해야 함
 - 원하는 과정을 찾아 지원서를 작성
 - 웹사이트에는 연수 과정의 새로운 정보, 활동 상황, 전문가들의 교육 내용 등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됨
 - 온라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각 도시에 있는 고용 사무실(Centri per l'impiego)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 컨설팅 에이전시 및 교육기관과 협업
 - 청년들의 ‘최소 3개월 취업 계약서 서명’이라는 구체적인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업
 - 교육기관은 청년들에게 맞는 과정을 기획하고, 에이전시는 그에 맞는 전문가들과 회사들을 찾아 연수 교육자로 선정
 - 연수받은 학생들의 취업률에 따라 에이전시와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지급
- 홍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 청년 자립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소셜미디어, 지역 라디오, 온라인 뉴스를 통해 무료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프로그램 평가

- 2022년 3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확대되는 추세
 - 州 혹은 市마다 중요한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 연수 프로그램 기획

<https://www.regione.toscana.it/-/corsi-per-giovani-neet>

<http://www.regioni.it/dalleregioni/2022/03/28/toscana-un-nuovo-corso-alla-tua-vita-al-via-la-campagna-per-formare-400-giovani-neet-647236/>

<https://formatica.it/corsi-gratuiti-neet/>

<https://www.lanazione.it/economia/neet-toscana-1.8267760>

<https://www.toscana-notizie.it/-/un-nuovo-corso-alla-tua-vita-al-via-la-campagna-per-formare-400-giovani-neet>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장애인 인권 법규 개정을 통해 ‘보호’에서 ‘존중’ 및 ‘이행’으로 확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인권 ‘존중’ 및 ‘이행’으로 범위를 확대한 지방법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실현하고자 함

배경

-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규(2011년 10호)」가 이후 제정된 중앙정부의 「장애인법(2016년 8호)」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 내 장애인 수의 증가와 이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경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65%,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76%가 비공식(informal) 부문의 일자리에 종사. 비장애인의 비공식 부문 종사 비율(49%)보다 현격히 높음
 - 장애인의 46%가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아, 비장애인의 미(未)학업 비율(12%)보다 현격히 높음

주요 내용

- 자카르타회의회는 州정부에서 발의한 「장애인 인권의 존중·보호·이행에 관한 지방법규(장애인 인권 지방법규)」 개정안을 통과시킴(2022년 10월 17일)
 -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규를 수정하여 장애인 인권의 ‘존중’ 및 ‘이행’으로 범위를 확대
 -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한계가 있어 보호만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보던 기존 시각(자선 모델, charity model)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각(사회 모델, social model)으로 전환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 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플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히 수용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기회를 차별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이번 법규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이 향후 수립할 지방법규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기대
- 이번 지방법규는 총 8장 134항으로 구성되며, 특히 장애인 인권이 ‘이행’될 총 18개 분야를 명시
 - ① 계획·평가, ② 정의 및 사법보호, ③ 교육, ④ 일자리·창업, ⑤ 보건, ⑥ 스포츠, ⑦ 문화·관광·창조경제, ⑧ 사회복지, ⑨ 인프라, ⑩ 공공서비스, ⑪ 교통, ⑫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⑬ 훈련·재활, ⑭ 할인·혜택, ⑮ 데이터 수집, ⑯ 정보·커뮤니케이션, ⑰ 여성·아동 보호, ⑱ 차별·무시·고문·착취 행위로부터의 보호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카르타장애위원회 설치
 - 총 7인의 위원 중에서 최소 5인은 각기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최소 30%는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
 -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존중·보호·이행 위반에 관한 불만사항을 적절한 정보기술 시스템을 통해 수렴하고, 인권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
-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집’ 건물을 새롭게 개소
 - 장애인들이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정보를 얻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또한,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 한편, 중앙정부 사회부는 자카르타  정부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차량 서비스를 제안
 - 장애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여러 노선을 누비는 특별 도시버스 서비스 신설을 촉구

<https://dprd-dkijakartapro.go.id/sah-dki-jakarta-resmi-punya-perda-disabilitas-baru/>

<https://dprd-dkijakartapro.go.id/raperda-tentang-pelaksanaan-penghormatan-perindungan-dan-pemenuhan-hak-penyandang-disabilitas-2/>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04/15551881/resmikan-rumah-digital-untuk-disabilitas-heru-budi-agar-mereka-tidak>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17/11343841/mensos-risma-usulkan-layanan-city-car-dan-bus-khusus-untuk-disabilitas-di>

박재현 통신문, jaehyeon.jay.park@gmail.com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10대 행동방안’ 시행

중국 충칭시 / 사회·복지

충칭시 정부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을 발표.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10대 행동방안의 내용을 제시. 2021년 말 현재 충칭시에서 취업이 가능한 연령층의 장애인은 45만 4,600명이었는데, 취업자는 23만 5,200명이었음. 충칭시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장애인 취업을 2만 명 이상 늘릴 계획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취업 촉진 3년 행동방안’

- 2022년 11월 1일 충칭(重慶)시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2022~2024년)(促進殘疾人就業三年行動方案(2022~2024年), 이하 ‘3년 행동방안’)’을 발표
 - 이번 ‘3년 행동방안’은 지난 3월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2022~2024년)’의 취지를 이어받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시켜 실행하기 위해 발표
 - 따라서 충칭시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 31개 성(省), 시, 자치구(自治區) 정부가 모두 마련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일제히 발표
- 충칭시 정부는 ‘3년 행동방안’을 적극 시행하여 2024년까지 장애인의 취업을 적어도 2만 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
 - 2021년 말 현재 전체 인구 3,212만 명의 충칭시에서 장애인 인구는 90만 4,800명이었음. 이 중 취업이 가능한 연령층의 장애인은 45만 4,600명이었고, 취업자는 23만 5,200명으로 취업률은 52.9%를 기록
 - 다만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90%를 넘어 중국 전체에서 상위권을 차지. 올해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은 830명이었음

3년 동안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10대 행동방안의 주요 내용

- 충칭시의 ‘3년 행동방안’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로 내건 10대 행동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고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 2021~2025년 기간 동안 50인 이상 편제된 시급, 구급, 현(縣)급 행정기관과 67인

이상 편제된 공공기관(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제외)이 장애인 고용에서 적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거나 장애인 취업 보장금¹⁾을 납부해야 함

- 국영(國營)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을 우선 배정하도록 시행
 - 특히 업무 범위가 비교적 넓고 일자리가 많은 국영기업은 매년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사진] 충칭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각 장애인 (출처: 왕이뉴스)

- 민영(民營)기업은 장애인의 취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단체의 취업 촉진 활동을 지원하도록 시행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급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 지원 사회단체와 장애인 고용 창출 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찾아내 취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市·區·縣급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
- 농촌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농촌의 빈곤 퇴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에 사는 빈곤선상의

1)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중국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국가가 정한 적정 비율의 범위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체계를 마련. 무엇보다 빈곤 퇴치 감시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 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시킴

-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졸업을 앞둔 장애인 대학생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충칭市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임
-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취업 촉진 활동을 시행
 -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완비하여 자격시험, 자격증 갱신, 지속적인 교육, 직업 심사, 학술 교류 등의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춘. 안마업종의 발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업소 창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장애인 취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 市 전역에 산재한 미취업 장애인에 대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기초정보를 확인. 이 중 취업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직업 능력 평가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회 이상 취업정보를 등록하며, 1회 이상 정밀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의 직업 기술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을 시행
 - 중·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장애인은 직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를 확대해 기술교육의 질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http://cq.news.cn/2022-11/11/c_1129119446.htm

http://www.cq.gov.cn/zwgk/zfxxgkml/szfwj/qtgw/202211/t20221109_11281693.html

https://m.thepaper.cn/baijiahao_19096100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4/08/content_5684090.htm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41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2월 12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